

공무출장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목적

- 제8회 한국영화문화학회(Korean Screen Cultures Conference) 발표 참석
- 한국영상자료원 발굴·출시작 <수업료>(1940, 80분) 영화 해설, DVD 상영 및 Q&A 진행
- 해외 한국영화 연구 동향 조사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출장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지	기 간	비 고
연구전시팀	사무직 5급	정종화	영국 프레스톤	2019.6.5~6.9 (4박 5일간)	

2. 출장 세부 일정

월일(요일)	방문장소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5(수)		○ 인천 출발 (10시 35분) ○ 영국 런던 도착(14시 35분) ○ 영국 맨체스터 출발(18시 15분) - 열차 이동 ○ 영국 프레스톤 도착(22시 30분)	
6.6(목)	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 (09:00~21:00)	○ 1일차 발표 참관(8개 패널) ○ 키노트 참석(16:15~17:15) ○ <수업료> 영화 해설, DVD 상영 및 질의응답 진행(17:15~19:15) ○ 컨퍼런스 리셉션 참석(19:30~21:00)	Mark R. Plaic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ndrew David Jackson(Monash University) 이상준(싱가폴 난양공대) 등
6.7(금)	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 (09:00~18:30)	○ (포스트) 콜로니얼 패널: 'Unearthed Joseon Films: Colonial Film and National Cinema' 발표 및 토론 (09:00~10:00) ○ 2일차 발표 참관(9개 패널)	신지윤(영국 셰필드 할렘 대학), 앤드류 로지(핀란드 헬싱키대학) 안지윤(독일 튀빙겐대학) Barbara Wall(University of Copenhagen) 등

6.8(토)		○ 영국 프레스톤 출발(06시 00분) - 열차 이동 ○ 영국 맨체스터 출발(09시 45분) ○ 영국 런던 출발(12시 35분)	
6.9(일)		○ 인천 도착(08시 00분)	

3. 출장 세부 내용

가. 학회 소개

- 올해 8회를 맞는 한국영화문화학회(Korean Screen Cultures Conference)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재정 후원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각지의 한국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영화학회임.
- 대체로 유럽, 북미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 영화학과와 한국학(동아시아학) 학제에서, 한국영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총결집하는 학회로, 발표 지원자 수, 선정 발표자 수 등을 감안하면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학회는, 영국 랭커셔주 프레스턴에 있는 센트럴 랭커셔 대학(UCLAN)의 국제한국학연구소(IKSU) 주최로, 한국학과의 마크 플레이스 교수가 호스트가 되어 개최함.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는 IKSU의 경우 설립 5주년을 맞음. 학부는 아시태평양학, 현대문학, TESOL&한국어의 3개 과정, 대학원은 북한학, 아시아태평양학의 2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체 재학생은 약 200명 정도라고 함.
- 올해 행사 일정은 6월 5일 프리 행사(K-Drama&Symposium)를 시작으로, 6일~7일 본 학회를 진행하였으며, 8일 발표 참가자들의 필드 트립을 진행하였음. 출장자는 6~7일 본 학회 일정만 참가함.
- 프리 행사인 K-Drama&Symposium의 경우 6개 패널로 16명의 발표자가 참가함. 드라마 상영 섹션에서는 <눈길>(2015)의 이나정 피디가 참가해, 상영 및 해설, 질의응답을 진행함.
- 6~7일 본 학회의 경우 이틀간, 50명 이상의 발표자가 참가해, 두 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발표 지원 및 선정 경쟁률은 3:1임). 청중의 경우, 한국학, 영화학 관련 대학원생들이 일부 참가했지만, 대체로 참가 발표자들이 다른 발표 패널의 청중으로 참가하는 워크숍 성격의 학회임.
- 해외에서 참가하는 발표자의 경우, 주최 측에서 3박의 숙박을 제공하며, 항공 및 교통편은 자비 부담임.

나. 출장자 진행 내용

○ 6월 6일: <수업료>(1940) 상영 전 해설, DVD 상영 및 질의응답 진행(* 붙임 파일: '수업료 영화해설' 발표자료 참조)

- 학회에 참가한 학자 약 30명이 상영 행사에 참가했고, 영화에 기록된 일제시기 조선 풍경, 중국전영자료관에서의 필름 발굴 과정, 후속 발굴 가능성, 한중일 근대사와 정치적 역학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특히 일제 당국으로부터 검열 받은 장면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6월 7일: 2일차 첫 순서인 “(포스트) 콜로니얼 패널”에서, ‘조선영화의 정체성: 식민지 영화와 내셔널 시네마 사이’ Unearthed Joseon Films: Colonial Film and National Cinema’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함(* 붙임 파일: '조선영화의 정체성 발표자료' 참조).

- 오전 첫 발표이었으나 청중이 20명 가량 참가해, 초창기 한국영화사에 대한 관심을 파악함. (*이번 학술대회에서 일제강점기 영화사 관련 발표의 경우 출장자가 유일했음)

- 일제시기 영화 역사와 사료 해석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주제로 정향된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됨. <집없는 천사>에서 일제 당국에 의해 검열된 장면, <자유만세>에서 박학, 독은기 등 월북영화인 삭제 장면, 월북 영화인과 장면 삭제 검열에 대한 당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대국민 효과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됨.

다. 그 외 발표 내용

○ 키노트는 ‘한국영화의 재발견: 한국영화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Rediscovering Korean Cinema: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Cinema Studies’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이상준 교수가 진행. 이 교수는 최근 『Hallyu 2.0: The Korean Wave in the Age of Social Media』(2015), 『Rediscovering Korean Cinema』(2019) 등 한국 대중문화 및 영화 관련 연구서의 편저를 진행하며, 영어권 한국영화 연구를 선도하는 소장 학자임. 키노트 발표를 통해 한국영화 연구 역사와 영미권 소개에 관해 압축적으로 소개함.

○ 이번 학회의 발표 패널은, 1) 서구 학자들이 선호하는 한국 호러 영화(드라마) 분석 2) 최근 학자들의 관심사인 트랜스내셔널한 제작 환경 3)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배급 환경의 급격한 변화 4) 한국영화에서 역사 재현 5) 한국 작가주의 영화 6) K-Pop 뮤직 비디오 7) 식민지 영화와 포스트 콜로니얼 영화 8) 북한 영화 섹션 9) 일본-한국 영화 관계사 연구 10) 최근 국가 주도 문화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 받는 영화제 연구 11) 트랜스내셔널 관객성 연구 12) 영화적 공간(환경) 등으로 구성됨.

○ 특히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합작 과정과 각 드라마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텍사스 오스틴대학 박사 과정 노현정의 발표, 한국영화 <만원>(1977)과 북한영화 <숲은 설레인다>(1982)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전후 남북한의 환경 문제와 문화사를 분석

한,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박사 과정의 Max BALHORN의 발표 등이 흥미로웠음.

라. 총평

- 한국학, 한국영화 연구 관련 교수부터 신진연구자까지 본 학회에 참가하는 50여 명의 발표자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직결되는 핵심 외부 고객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 집단과의 교류 관계가 우리원 해외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함.
- SCMS(Society For Cinema and Media Studies), AAS(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등 한국영화에 관해 발표하는 역사와 권위가 있는 학회에 비해, 박사급 연구자, 박사과정 재학 중의 연구자 등 신진연구자의 발표 비중이 높았지만, 이들이 향후 한국영화(사)의 핵심 연구층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그동안 우수영상물 DVD 등 우리원 발간물의 해외 배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간 DVD, 도서 등 발간물의 구입 방법에 대한 질문과 발송 의뢰가 있었음. (* 연말 발송전에 발송리스트를 정비할 계획임)
- 연구자들 대부분은 한국영상자료원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들의 경우 안식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추후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공간 등 지원 가능 범위를 논의하기로 함.